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뜻깊은 태양절에 즐음하여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4월 15일 0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이 모셔져있는 홀에 들어서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 양옆에는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 군기들이 세워져있으며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동적위군명예위병대

아버지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불세출의 위인이시며 타월한 선군령장이신 어버이장군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경건하고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이 모셔져있는 홀에 들어서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 양옆에는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 군기들이 세워져있으며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동적위군명예위병대

가 정렬해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을 우러러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동적위군명예위병대 대장이 영접 보고를 드리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에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

가 진정되었다.

꽃바구니의 땅 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가장 경건한 심정으로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가장 경건한 심정으로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평양시민들과 함께 태양절경축 은하수음악회를 관람하시고
태양절을 맞으며 진행된 군사학교 교직원체육경기를 보시였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4월명절을 맞으며 15일 평양의 인민극장에서 태양절경축 은하수음악회가 성대히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였다.

순간 폭포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오르고 장내는 비범한 예지와 걸출한 령도실력, 고매한 인덕을 지니시고 새

로운 주체 100년대 진군을 전두에서 이끄시며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만천 하에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토와 충정의 열기로 세차게 끓어번졌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관람자들에게 따뜻이 손을 저어주시였다.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혼성6중창 《태양절을 노래하세요》, 남성독창과 방창 《김일성대원수 만만세》, 너성독창과 너성방창 《충성의 노래》, 너성3중창 《수령님의 조국》, 너성4중창 《수령님 높이 모신 내 조국 노래하네》, 남성독창과 남성방창 《오늘의 창성》, 혼성2중창과 남성방창 《황

금산타령》, 혼성6중창 《내 조국 한없이 좋아라》 등의 종목들이 올랐다.

민족기 악2중주 《비날론 삼천리》, 혼성중창 《돌파하라 최첨단을》 등의 종목들은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받드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령도가 있어 태양민족의 존엄과 기상이 만방에 펼쳐지고 주체조선의 무궁번영을 위한 억년기틀이 마련되었음을 감명깊게 형상하였다.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은 영생하시며 태양의 력사는 길이 빛날것이라는 신념이 차넘치는 무대에 너성독창과 남성방창 《인생의 영광》, 너성독창과 방창 《나가자 조선아 병진앞으로》의 종목들이 오르며 공연은 절정을 이루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 만세 높이 모시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반미 전면대결전과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이룩해 갈 천만군민의 의지를 풍만한 예술적화폭으로 보여준 음악회는 혼성대중창 《운명도 미래도 맡긴분》으로 끝났다.

장내에는 또다시 《만세!》의 우렁찬 환호성이 터져오르고 끝없는 감격과 환호가 세차게 끓어번졌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열광의

희가 세차게 굽이쳤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고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4월 15일 군사학교 교직원체육경기가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체육경기를 보시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였다.

선수들과 관람자들은 폭포같은 《만세!》의 환호를 올리면서 타월하고 정력적인 령도로 수령영생위업을 보다 높은 단계로 심화발전시키며 태양의 력사가 끝없이 흐르도록 해주시고 주체혁명

위업,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수행에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펼쳐 창조하고 계시는 백두산대국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 필승의 신념을 힘있게 파시하며 전투적으로 박력있게 진행되었다.

열광적인 응원으로 하여 장내는 용암마냥 끓어번졌다.

배구경기에서는 김일성군사종합대학팀이 이겼다.

이어 김일성군사종합대학과 김일성정치대학팀 간의 배구경기가 진행되었다.

경기는 백두산대국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 필승의 신념을 힘있게 파시하며 전투적으로 박력있게 진행되었다.

량팀 선수들은 속공에 의한 결합전술을 위주로 하여 전격전을 벌리면서 둘밀이기와 중장거리던져넣기로 보기 좋은 득점을 성공시켰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선수들이 재치

있는 동작들로 훌륭한 경기장면들을 보여줄 때마다 박수를 보내시며 고무격려해주시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더욱 격렬하게 진행된 통구경기에서도 김일성군사종합대학팀이 이겼다.

이날 관람자들의 호기심과 속구치는 격정을 한껏 분출시키며 장기경기와 바출당기경기도 진행되었다.

장기경기에서는 김일성군사종합대학팀이, 바출당기경기에서는 김일성정치대학팀이 승리하였다.

응원을 비롯한 경기종목들에 대한 평가와 시상이 있었다.

체육경기가 끝나자 장내에는 또다시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터치는 우렁찬 《만세!》의 환호소리가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선수들과 관람자들에게 답례하시며 경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사학교 교직원체육경기가 훌륭히 진행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집단주의정신과 높은 경기도덕품성을 발휘한 선수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하여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탄생 101돐을 맞으며 재일동포자녀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위하여 보내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지금까지 도합 159차례에 걸쳐 일본본동으로 471억 2 335만 390㌦에 달한다.

본사기자

지난 18일 남조선의 통일부당국

자는 저들의 그 무슨 《대화》라

는 령에 대한 공화국의 단호한 립장에 대해 《유감》이니 뭐니 하는 열

도당도 않은 말을 늘어놓았다. 지어 외교부 대변인이라는자는 주장을 참으로 리해하기 어렵다.》느니, 《직반하장》, 《어불성설》이라는 발언까지 하였다.

철면피하다는 말은 이런 것을 두고 하는 소리이다.

외세와 결탁하여 공화국에 대한 《제재》 소동과 북침핵전쟁책동에 그처럼 미쳐날뛰면서

사죄한마디없이 빙빙 데기에 불과한 《대화제의》를 받아들이

지 않는다고 양탈질을 부리는것이야 말로 얼마나 뻔뻔스러운가.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대화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먼저 공화국의 존엄을 모독하는 행위를 일체 중지하고 북침전쟁연습과 반공화국 《제재》 소동을 걷어치우며 앞으로도 그리 한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것을 온 민족앞에 확약하는것이 순리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지금 사태는 그와는 정반대로 흐르고있다.

며칠전 백주에 서을 한복판에서

는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천추에 용납 못 할 구악한 망동들이

당국의 비호밑에 공공연히 감행되

었다.

또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의 북

침전쟁소동도 절정에 달하고있다.

지난 5일부터 포항일대에서는 《독

수리》 활동군사연습의 일환으로 일본 오끼나와에 주둔한 미 해병3사

단 등 3 000여명이 참가한 편합상

록훈련이 벌어지고있다. 상록작전

이 명백한 공격작전이라는것은 삼

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그러나 내

외호전광들은 이 혼련에 《방어적

성격의 혼련》이라는 외피를 씌우고 침략책동에 더욱 기승을 부리

고 있다.

여기에도 국방부 장관 김관진을 비롯한 호전광들은 물론 청와대 안

방주인까지 직접 나서서 《북이 위

협하고 도발하면 또다시 협상하고

지원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느니, 《북의 고립》이니 뭐니 하고

공화국의 존엄을 심히 훼손하는 망

발을 하였다.

나타난 사실들은 남조선당국의 《대화제의》라는것이 처음부터 전혀 마음에 없는것이였으며 여론의 압력에 못이겨 마지못해 들고나온것이라는것을 말해준다.

또한 정세를 전시 상황에 물어넣은

저들의 죄행을 꼬리 자르기하고 위기

를 보면 여론을 오도하여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교활한 술책이라

는 것을 여실히 실증해준다.

남조선당국이 개성공업지구문제만

을 대화의 의제로 삼으려고 하지만

이번 공업지구사로 말하면 현 북

남관계 정세의 집중적 반영이다.

개성공업지구를 통족대결장으로,

전쟁발원지로 만들려 하면서 《운영

정상화를 위한 대화》요 뭐요 하는

것은 한갓 요설에 지나지 않는다.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보도록하고

령장과 강군

80여년의 혁사를 헤아리는 조선인민군의 행로는 현전현승의 자랑스러운 폐지로 수놓아져 있다.

오늘 인민군대가 경량화, 소형화되고 다종화된 정밀핵타격 수단들을 갖추고 지구상 그 어디에 있든 침략의 본거지를 단번에 짓부수할 수 있는 무적강군으로 위용떨치고 있는 것은 위대한 선군령장들의 현명한 정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명장들에는 약줄이 없고 위대한 명장의 슬하에 강군이 있다.

항일대전의 첫 총성을 울린 그때로부터 조선인민군이 걸어온 80여년의 혁사는 위대한 선군령장들의 탁월한 정도의 력사이다.

일찍이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정도밀에 자기의 탄생을 선포한 인민군대는 정규군의 지원도 국가적 후방도 없이 유격전으로 일제의 100만대군을 쳐부시고 조국해방의 혁사적 위업을 성취했으며 수령님의 정도밀에 정규무력으로 성장하여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국과 그 추종국가군대의 침략을 격파하고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영예롭게 수호하였다.

아버지 수령님께서는 군력이 약하면 피흘리며 찾은 조국을 또다시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철의 진리로 새기시기에 지난 세기 1960년대 초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 때 대한 로선을 내놓으시고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시였다.

공화국을 알살하려는 미국의 끊임없는 간섭과 전쟁도발책 등으로 조선반도에서는 언제 한번 평온한 때가 없었고 정치군사적 대결로 초래된 일촉즉발의 위기는 한두번이 아니었다.

그때마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명장의 뛰어난 지략과 무적의 강군으로 장성 강화된 인민군대가 있어 민족의 존엄과 나라

의 자주권은 영예롭게 수호되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주체 49(1960)년 8월 25일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 105땅크 사단을 시찰하신 그때로부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 옷은 날, 마른날 가림없이 선군장정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였다.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은 총대

에 위하여 담보된다는 드립없는 신념을 지니시고 전선에서 전선으로 동에 번개, 서에 번개 종횡

무진 하시며 인민군장병들에게 일당백의 전법과 전술을 가르쳐주시고 천백배의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신 장군님이시다.

돌이켜보면 1990년대에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것을 기회로 전례없이 악랄하게

감행된 적대세력의 반공화국 압살책 등으로 말미암아 우리 조국과 인민은 포성없는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안되었다.

바로 이러한 때 천리혜안의 예지와 비범한 정치군사적 안목으로 조성된 정체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신 장군님께서는 반공화국 침략세력의 강경에 초강경대응으로 맞서 조국과 민족의 운명과 존엄

을 수호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 강적을 타승하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총 한방 쏘지 않고 제국주의 세력과의 대결에서 련전련승하신 21세기의 위대한 선군령장이시다.

오늘 조선인민군은 또 한분의

천출명장을 모시여 강군의 자랑스러운 혁사와 전통을 빛내여가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종책을 지니시고 진행하신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 105땅크 사단에 대한 시찰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결으신 선군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갈 그이의 드

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내외에 친명한 혁사적 사변이였다.

그이께서는 지난 1년간 조국의 최전연, 최전방초소들과 진지들을 끊임없이 시찰하시면서 조국수호의 균위병들에게 멸적의 투지와 용맹의 나래를 달아주시며 조국통일대전을 위한 싸움준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시였다.

공화국의 평화적 위성발사와 자위적인 제3차 지하핵시험을 걸고들며 반공화국 압살책 등에 광분하는 미국의 전쟁도발수동에 대처하여 미제의 핵공격에는 무자비한 핵공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전면전쟁으로 대답할것이라고 하시면서 미제가 핵으로 우리를 위협공격하는 시대를 영원히 끝장내야 한다고 하신 원수님이시다.

그이께서 최근에 계시하신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 때 대 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은 자위적 전쟁 억제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경제건설에 더욱 박차를 통하여 경상국가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 할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로선이며 반미대결전을 종결하고 조국땅우에 통일되고 번영하는 천하제일강국을 세우시려는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령장의 신념과 의지의 결정체이다.

백두의 산악과도 같은 필승의 신념과 배짱, 담대한 기상과 무비의 담력을 지니시고 인민군대를 이끄며 나라의 군력강화와 강성국가건설을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공화국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진드릴수 없는 백두산대국으로 영원히 존엄될것이며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성국가의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말것이라는것이 뜻깊은 전군을 앞둔 시기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시금 굳게 자리잡는 확신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무적 필승의 백두산 강군의 위용을 떨치며 보무당당히 나아가는 열병대오들

지금 공화국이 강성국가건설을 다그치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반제반미 대결전을 배심있게 벌리고 있는 것은 군대가 강하기 때문이다.

1932년 4월 25일 진군의 낮을 올린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조국의 자유와 독립,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서 자기의 성스러운 사명과 본분을 다한 인민군대이다.

조선인민군은 미일 두 제국주의 협강을 타승하는 군사적 기적을 창조하였으며 외세의 끊임없는 침략과 간섭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수며 나라의 존엄과 인민의 안녕을 믿음직하게 보위하였다.

지난 세기 정규군의 지원도 국가적 후방도 없는 혈악한 조건에서 아시아의 『맹주』로 돌아아치며 『대동아공영권』을 꿈꾸는 일제의 100만대군을 격멸한 항일대전의 혁사적 승리는 위대한 령장 김일성주석의 비범한 군사적 지략과 전략전술, 탁월한 평군술의 빛나는 결실이었다. 희세의 전설적 명장을 높이 모시으므로 인민군대는 지난 세기 50년대 청소한 정규무력이였지만 세계 『최강』을

차량하는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 합세력을 격파하는 혁사에 류례없는 군사적 기적도 창조할수 있었다.

대를 이어 위대한 선군령장을 모신 것은 인민군대의 무상의 행운이며 더없는 영광이다.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여 인민군대는 자기의 군건설리사에서 최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

태덕산과 351고지, 초도와 오

전령승의 개가를 울린 무적강

군의 혁사를 감회깊이 들이켜 보았으며 하늘땅을 진감하며 열병식장을 누비는 각종 구경의 자행포, 맹크들과 방사포, 해상장갑무력, 로켓트를 비롯한 높은 기동력과 타격력을 장비한 무쇠철갑대오의 위용에서 선군의 기치높이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위대한 장군님의 엄격을 다시금 절감할수 있었다.

탁월한 군사적 지략과 평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명진시킬테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시여 선군조선의 자주적조선을 영원히 고수하고 빛내여나갈수 있게 되었으며 핵무력을 증추로 하여 나라의 군력을 더욱 철벽으로 다져나갈수 있게 되었다.

오늘 인민군대가 지구상 그 어디에 있는 침략세력이든 일격

제2의 7.27을 맞이할것이다.』라고 평하였다.

지금 조선반도에는 공화국에 대한 미국과 그 주종세력들의 국악무도한 자주권침해 행위로 하여 정전이후 최악의 침예한 정세가 조성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적들이 공화국의 평화적인 위성발사와 자위적인 제3차 지하핵시험을 걸고들며 불법무법의 『제재』와로 골적인 군사적공세를 가해온 존엄한 시기에 최대열점지역의 섬방어대들을 련이어 시찰하시고 전략로케트군화력타격계획을 최종검토, 비준하시여 미국과 그 주종세력을 들을 틈없이 하시고 영웅적조선인민군의 필승의 기상을 만방에 펼치도록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선군정치의 위력과 생활력은 날이 갈수록 더욱 뚜렷이

파괴되고 있으며 허리띠를 풀라매고 선군정치를 하며 국방용을 강화한것이 얼마나 정당한 것이라고 하시였다.

미래에 대한 그이의 확신은 억척불변이였다.

백두산장군이 걸어온 길

성산,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 105땅크 사단을 비롯한 조국의 고지들과 섬초소, 특별공군부대들과 최전연의 전호마다

에는 군건설과 군력강화에 기울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의 자주와 뜨겁게 어리여았다.

지난 해 4월 15일 평양에서 성대히 거행된 위대한 김일성주석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은 인민군대의 자랑찬 80년의 혁사를 뿐이니 파시한 혁사적기였다.

지축을 울리며 노도처럼 열병대오의 발걸음을에서 사람들은 반제자주의 대결전마다에서 련

전령승의 다종화된 정밀핵타격수단들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갖춘 무적의 강군으로 위용

펼치게 된 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이루하신 거대한 민족적 혁명적이다. 하기이 외국의 광범한 언론들은 『미국이 조선을 세우는 7.27을 맞이할 것이다.』라고 평하였다.

온 나라 군대와 인민들은 인민군대를 필승불패의 자위적무

장력으로 만드신 절세위인들께서 이루하신 거대한 민족적 혁명적이다. 하기이 외국의 광범한 언론들은 『미국이 조선을 세우는 7.27을 맞이할 것이다.』라고 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명예를 구현해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루하신 거대한 민족적 혁명적이다. 하기이 외국의 광범한 언론들은 『미국이 조선을 세우는 7.27을 맞이할 것이다.』라고 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명예를 구현해나가는 혁명적이다. 하기이 외국의 광범한 언론들은 『미국이 조선을 세우는 7.27을 맞이할 것이다.』라고 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명예를 구현해나가는 혁명적이다. 하기이 외국의 광범한 언론들은 『미국이 조선을 세우는 7.27을 맞이할 것이다.』라고 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명예를 구현해나가는 혁명적이다. 하기이 외국의 광범한 언론들은 『미국이 조선을 세우는 7.27을 맞이할 것이다.』라고 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명예를 구현해나가는 혁명적이다. 하기이 외국의 광범한 언론들은 『미국이 조선을 세우는 7.27을 맞이할 것이다.』라고 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명예를 구현해나가는 혁명적이다. 하기이 외국의 광범한 언론들은 『미국이 조선을 세우는 7.27을 맞이할 것이다.』라고 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명예를 구현해나가는 혁명적이다. 하기이 외국의 광범한 언론들은 『미국이 조선을 세우는 7.27을 맞이할 것이다.』라고 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명예를 구현해나가는 혁명적이다. 하기이 외국의 광범한 언론들은 『미국이 조선을 세우는 7.27을 맞이할 것이다.』라고 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명예를 구현해나가는 혁명적이다. 하기이 외국의 광범한 언론들은 『미국이 조선을 세우는 7.27을 맞이할 것이다.』라고 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명예를 구현해나가는 혁명적이다. 하기이 외국의 광범한 언론들은 『미국이 조선을 세우는 7.27을 맞이할 것이다.』라고 평하였다.

인민에게 덕을 준다

혀 다르다고 하면서 『서해갑문으로부터 시작하여 안변

청남발전소, 금릉동굴이나 구월산유원지, 평양·향산관

광도로 건설에 이르기까지

구묘설현장은 군대가 이끌었다. 북에서 군대는 권력을

갖고 국가를 지배하는 집단이 아니라 힘든 공사를 많

아하는 집단이며 국민을 억압하고 취득하는 세력이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 일하는 집단』이라고 평하였다.

그이께서는 인민군인들을 부모형제들을 위하고 자

기 집뜰안을 꾸리는 심정으로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여 인민의 군대로

서의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

파수, 양어를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인민들의 문명하고

유족한 생활을 위한 많은 성

파들이 이룩되었다.

예로부터 군대는 소비집단

이고 백성이 군대를 멀어 살

리는 것은 옹당한 일로, 국사의 법칙처럼 되여왔다.

허나 공화국의 군대처럼 인민을 돋고 인민생활상을 위해 헌신분투하는 그런 군대는 없다.

인민군대를 세상에서 제

최근년 간에만도 희천

발전소와 대동강과 수종

합동장, 평양민속공원,

창전거리, 풍라인민유원지,

인민극장과 같은

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

들을 우후죽순처럼 일떠

세운 것은 인민군대이다.

평양대극장, 만경대유희장,

대성산유희장과 같은

문화생활장소들이 세워

흔히 사람들은 꿈은 아이들에
게 어울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로년기에도 꿈은 있는
가 봅니다.

세월이 갈수록 더해 만지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 속에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아 그이를 뵈온
화창한 4월의 태양절 봄밤에 저
는 참으로 신기한 꿈을 꾸었습
니다.

생시에 무엇을 그토록 기원하
면 그것이 꿈에 나타난다더니
태양절의 그 시작이 한시비빠
오기를 자나깨나 바란다 간절한 그
소망이 실현된 기쁨이 아마도 꿈
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90을 넘긴 제 나이에 꿈이야기
를 한다는 것이 어쩐지 주제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꿈속에서 전해들은
절세위인들의 탄신절수자에 어려
있는 뜻이 신통함을 넘어 참으로
신령스러운 것인기에 글로 전하고
싶어 이렇게 봇을 들었습니다.

* * *

총총 별들이 구슬처럼 빛을
뿌리는 고요한 밤하늘에서 갑자
기 신기한 바람소리가 들려왔
습니다.

바다보니 흰옷을 입은 백발
의 로인이 쪽배 같이 생긴 구름에
척 걸리 애저를 정답게 내려다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바라보며 미소짓는 모습
이 어쩐지 낯익어 눈을 다시
뜨고 바라보니 글쎄 그 백발로인
은 천도의 학문을 창시한 수운대
신사님이었습니다.

너무도 뜻밖이어서 제가 어찌
할바를 모르고 있는데 밤하늘을
올리며 수운대신사님의 석침한
목소리가 울려왔습니다.

《판물이 소생하고 꽃들이 만
발하는 4월의 이 봄날에 그대는
무엇때문에 그리도 심신을 태우
고 있는가?》

지금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전략핵타격수단들까지 동원하
여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
에서 북침합동전쟁연습인 《독
수리》 연습을 마지막 단계에서
발악적으로 벌리고 있다. 한편
으로 내외호전세력은 《대화》
니, 《비핵화》니 하면서 어
떻게 아울러 공화국이 핵을 포기
하도록 하기 위해 험유와 암박
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
세력의 목적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공화국
의 핵무장해제와 《제도전복》
을 이루어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그에 굴복하여 자위의
핵을 포기 할 공화국이 아니다.

공화국의 핵은 억만금과도 바
꿀수 없는 민족의 생명이다.

핵사를 들이켜 보면 조선봉진
왕조 500여년의 사대정치로 국
력이 쇠약해질대로 쇠약해져 종
당에는 외세에게 나라를 통제로
빼앗기고 비참한 노예의 운명에
처하였던 것이 한세기 전 우리 민
족이였다.

억만금과도 바꿀수 없는 민족의 생명

은 오늘도 후대들에게 사명감을
자각하라 웨치고 있다.

우리 민족의 한이 새겨주는 피
의 교훈, 그 한이 새겨주는 사명
감은 무엇인가.

바로 힘이다. 민족의 힘이 강
하면 부흥하고 힘이 약하면 망
한다는 것은 역사의 진리이다.

힘이 없어 나라를 빼앗아야 했
던 우리 민족이 오늘은 자위의
핵을 자기에 틀어친 강대한
민족으로 존엄을 떨치고 있다.

공화국의 핵은 믿음직한 전쟁

은 안해,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
하는 암울다움을 빼앗기고 유린당
해야만 했고 무고한 거제의 피
가 왕자히 강도를 적시고 형제
자매들은 금수처럼 막아죽고 병
나죽고 죽어죽어야 했다. 지나
온 민족의 과거사를 거슬러볼수
록 겨레의 눈물과 피의 혼적은
역사의 널리마다 아조계에 어려
있고 그 많은 영혼들이 남긴 한

역제력,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
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오늘도 세계에는 강자가 약자
를 집어삼키고 약자는 엄어맞
아도 어기가 하소연할데도 없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핵무기가 세상에 출현
하여 근 70년이 흘러오는 동안 세
계적 규모의 폭탄이 오랜 기간 지

상대가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이고 미국이 공화국을 계
속 해으로 위협하고 있는 조건
에서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유효
하게 다지는 여기에 평화도 있고
부강번영도 있으며 인민들의 행
복한 삶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핵무기는 세상에 출현
하여 고종왕조를 대체하고 우리
민족의 최대 숙원인 조국통일의
위업을 앞당겨 이룩하며 통일조국
의 통성번영도 영도 영원히 담보하는
민족공동의 귀중한 재

부이다.

지금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공화국의 그 무슨 《핵포기》에
대해 운운하고 있지만 이것은 민
족의 생명을 스스로 저들의 손
에 내맡기라는 것이다.

이것은 침략자와 침략의 본거
지들이 그 어디에 있든 핵무기
로 정밀타격할 수 있는 능력만
갖추면 그 어떤 침략자도 힘으로
내맡기라는 것이다.

공화국의 핵은 협상탁우에 올
려놓고 홍정할 경제적 거래물이
아니며 억만금과도 바꿀수 없는
것으로서 우리 민족 모두가 생명
으로 간주하고 최대의 흥로에
여겨야 할 조선의 국보이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김동철

총대는 민족의 운명과 흥
망성쇠를 좌우하는 기본요인

을 성발사를 할수 없으며 하
루 인도네시아 10일부가

면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것
을 이중기준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국제법에는 위성발사를

장려하는 조항은 있어도
그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신문은 공화국이 제
3차 지하핵시험을 단행하
게 된 근거에 대하여 렐
거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
하였다.

광범한 국제사회는 조
선의 제3차 지하핵시험을

미국의 선제공격과 위협,

제재, 압력으로부터 나라
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간주하고
하였다.

19세기 말에 들어서면서 해
외침략에 피눈이 되어 날뛰

는 일본군을

대가 왕궁을 지키고 친로파

가 득세하면

로 쏘아군대가

들었다.

총포, 활대를 앞세우고
오늘은 미국이, 배일은 일본
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나
라가 렐거이 달려드는 긴박

한 시기에 부패무능한 조선
제국주의 힘들들을 일삼아
온다.

다시말하여 조선의 핵시
험은 미국의 적대시정책
에 대응한 정당한 자위적
조치이다.

세계가 공인하는 바와 같
이 조선은 자주성이 강한
나라, 한다면 하는 나라
이다.

지금 조선인민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적대행위
로부터 나라이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대결

전에 진입하였다.

세계는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산악같이 일
떠선 조선인민이 온갖 적대
세력들을 어떻게 정벌하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임금을 호위하며 친청파가
득세하면 청나라군대가 대
결의 파수를 섰으나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기회를 타서 일제는
1905년 왕궁을 군사적으로
완전히 포위하고 제작한 청
제가 조선군대를 제 마음대
로 해신시켜도 항거의 총소

리를 풀려수 없었던
가련하고 비참했던 우리 나
라였고 우리 민족이었다.

결과 우리 민족에게 애국
심이 없었던 탓에 물어 거자
기로 굴욕을 감수하지 않으
면 안되었다.

《시일야방성대곡》의 피

침략자들은 대포를 비롯한
현대적 무장을 갖추고 덤프드
는데 조선군대의 무장은 고
작해야 구식소구경포와 화승
대기로 전부였다.

저렬한 군력으로 나라는
커녕 왕국도 제대로 지킬 수
없어 명성황후는 왜적들에
의해 란도전당하고(1895년
《을사사변》) 고종황제는
제땅도 아닌 남의 나라 공사
관에 1년 동안이나 함께 되
는(1896년 《아관파천》) 관
국이었다.

친일파가 득세하면 일본군
대가 왕궁을 지키고 친로파
가 득세하면

로 쏘아군대가

들었다.

총포, 활대를 앞세우고
오늘은 미국이, 배일은 일본
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나
라가 렐거이 달려드는 긴박

한 시기에 부패무능한 조선
제국주의 힘들들을 일삼아
온다.

다시말하여 조선의 핵시
험은 미국의 적대시정책
에 대응한 정당한 자위적
조치이다.

세계가 공인하는 바와 같
이 조선은 자주성이 강한
나라, 한다면 하는 나라
이다.

지금 조선인민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적대행위
로부터 나라이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대결

전에 진입하였다.

세계는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산악같이 일
떠선 조선인민이 온갖 적대
세력들을 어떻게 정벌하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이 호소하였지만 종당에 차
례진 것은 고종황제의 강제
퇴위와 《한일합병》이라
는 망국의 운명이었다.

그 기회를 타서 일제는
1905년 왕궁을 군사적으로
완전히 포위하고 제작한 청
제가 조선군대를 제 마음대
로 해신시켜도 항거의 총소

리를 풀려수 없었던
가련하고 비참했던 우리 나
라였고 우리 민족이었다.

결과 우리 민족에게 애국
심이 없었던 탓에 물어 거자
기로 굴욕을 감수하지 않으
면 안되었다.

《시일야방성대곡》의 피

눈물로 망국의 한을 터뜨린
인민들은 빼앗긴 국권을 회
복하기 위한 독립운동에 결
사하거나 나섰다.

일제가 《을사5조약》을
강요하였을 때 끌어 옥새만
은 내놓지 않았던 고종황제
는 어떻게 하나 독립을 이
루어보겠다고 안간힘을 쓰며
대국들의 힘으로 빌어보려
고 밀사도 파견하였다.

하지만 가냘픈 봉선화마냥
힘이 없는 조선의 대표들을
그 어떤 대국도 거들떠보지
않았으며 한 애국지사는 배
를 가르고 퍼를 뿐이면서 까
지 국권을 찾아달라고 절절

하였다.

《조선전쟁은 잘못 고른
장소에서 잘못 고른 시간에
잘못 만난 적》과 짜운 잘
못한 전쟁이었다.

이 말은 세계 《최강》을

자주적 협상을 빼앗아도록 민
족에게 강제로 달려온

한국을 그 누구도 감히 전드릴
수 없는 무적 강국으로 만드

시켰다.

백두산에서 탓을 옮기면서
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
직 승리만을 아로새겨온 자
랑찬 종대의 혁사는 선군의
길이 얼마나 정당한 애국에
죽어온 민족의 힘으로는 찾

기 어렵다.

오늘 우리 민족은 백두산
이 낳은 또 한분의 천명장
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을 모시며 백두산강국의 위
용을 세계만방에 떨쳐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원수들이 칼을 빼들면 장

검으로 내리치고 총을 내대

면 대포로 풍자박산내고 핵

으로 위협하면 그보다 더 위
한 우리식의 정밀핵타격
수단으로 맞서 침략자, 도발
자들에게 정의의 불벼락을

안기겠다고.

오늘 공화국이 더욱 억체
같이 다져나가고 있는 핵억제
력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
을 지키며 전쟁을 막고 평화
를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수
단이다.

미국과 온갖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적대행위가 최절정

을 치닫고 있는 지금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명령만 내

려지면 정의의 조국통일대전

전 사람같이 떨쳐나서 침

략자들을 모조리 격멸하

고 정의의 반미대결전과 조

국통일의 최후승리를 안아올

리적의 결의와 의지에 넘쳐

있다.

국제 사회계가 인정하듯이

특대형범죄행위를 감행한 대결광신자들은 단호한 징벌을 면치 못한다

지난 15일 산송장의 무리에 불과한 남조선의 『대한민국어버이련합』 국우이멸 거지들이 백주에 서울한복판에서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민족최대의 경사의 날, 인류공동의 명절인 태양절에 남조선역적폐당이 반공개파무리들을 내몰아 반공화국집회라는 것을 벌려놓고 민족의 최고존엄을 또다시 해치려든것은 동족대결과 적대감을 고취시키고 정세를 더욱 격화시키려는 고의적이며 계획적인 도발이다. 또한 공화국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고 민족의 냉을 송두리채 허물어뜨려는 특대형범죄이다.

태양절은 반만년민족사에 처음으로 높이 보신 절을 갖는 적대세력들에 대한 천백배의 보복의지로 심장의 피를 세차게 끓이고 있다. 절세의 백두산위인들과 운명의 피줄을 잊고 사는 것은 공화국 군대와 인민의 더없는 영광으로, 행운으로 되고 있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영도자를 떠나서 공화국 군대와 인민의 자주적인 삶과 존엄, 밝은 미래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하기로 이번에 또다시 상상을 초월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최후통첩에 대해 남조선당국이 『리해하기 어려운 처사』로 높이 모시고 어떤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대원수님들의 거룩

의 정을 터치였다. 바로 이런 뜻깊은 날에 하늘무서운줄 모르고 저지른 남조선역적폐당의 대역죄는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조성된 사태와 관련하여 남조선역적폐당에게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훼손시킨 자들을 무자비하게 짓동개버릴 최후통첩장을 보내었다.

지금 공화국 군대와 인민은 이번 국악무도한 망동의

한 존함과 절대적권위, 불멸의 업적을 백방으로 결사옹위하고 있는 것이다.

공화국의 최고존엄은 천만군민의 제일생명이고 억척불변의 기둥이며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가장 신성한것으로 되고 있다.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훼손시킨 것은 조선민족자체를 부정하고 공화국 군대와 인민의 심장을 란도질하는 국악무도한 만

하는 것은 그들이 암으로 『대한민국어버이련합』의 치매증환자들과 똑같은 인간폐물들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남조선역적폐당은 이번 사건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미국상전에 빌붙여 조선사람이기를 그만둔 넋빠진 망동짓을 한 남조선역적폐당은 공화국의 강력한 타격수단들의 조준경안에 있다.

여제는 수령영생, 수령청송의 기념비들을 어제보려고 책동하다 못해 오늘은 감히 우리

의 최고존엄의 상징에 손을

하는 것은 그들이 암으로 『대한민국어버이련합』의 치매증환자들과 똑같은 인간폐물들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남조선역적폐당은 이번 사건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미국상전에 빌붙여 조선사람이기를 그만둔 넋빠진 망동짓을 한 남조선역적폐당은 공화국의 강력한 타격수단들의 조준경안에 있다.

여제는 수령영생, 수령청송의 기념비들을 어제보려고 책

동하다 못해 오늘은 감히 우리

의 최고존엄의 상징에 손을

하는 것은 그들이 암으로 『대한민국어버이련합』의 치매증환자들과 똑같은 인간폐물들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남조선역적폐당은 이번 사건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미국상전에 빌붙여 조선사람이기를 그만둔 넋빠진 망동짓을 한 남조선역적폐당은 공화국의 강력한 타격수단들의 조준경안에 있다.

여제는 수령영생, 수령청송의 기념비들을 어제보려고 책

동하다 못해 오늘은 감히 우리

의 최고존엄의 상징에 손을

하는 것은 그들이 암으로 『대한민국어버이련합』의 치매증환자들과 똑같은 인간폐물들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남조선역적폐당은 이번 사건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미국상전에 빌붙여 조선사람이기를 그만둔 넋빠진 망동짓을 한 남조선역적폐당은 공화국의 강력한 타격수단들의 조준경안에 있다.

여제는 수령영생, 수령청송의 기념비들을 어제보려고 책

동하다 못해 오늘은 감히 우리

의 최고존엄의 상징에 손을

하는 것은 그들이 암으로 『대한민국어버이련합』의 치매증환자들과 똑같은 인간폐물들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남조선역적폐당은 이번 사건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미국상전에 빌붙여 조선사람이기를 그만둔 넋빠진 망동짓을 한 남조선역적폐당은 공화국의 강력한 타격수단들의 조준경안에 있다.

여제는 수령영생, 수령청송의 기념비들을 어제보려고 책

동하다 못해 오늘은 감히 우리

의 최고존엄의 상징에 손을

하는 것은 그들이 암으로 『대한민국어버이련합』의 치매증환자들과 똑같은 인간폐물들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남조선역적폐당은 이번 사건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미국상전에 빌붙여 조선사람이기를 그만둔 넋빠진 망동짓을 한 남조선역적폐당은 공화국의 강력한 타격수단들의 조준경안에 있다.

여제는 수령영생, 수령청송의 기념비들을 어제보려고 책

동하다 못해 오늘은 감히 우리

의 최고존엄의 상징에 손을

하는 것은 그들이 암으로 『대한민국어버이련합』의 치매증환자들과 똑같은 인간폐물들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남조선역적폐당은 이번 사건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미국상전에 빌붙여 조선사람이기를 그만둔 넋빠진 망동짓을 한 남조선역적폐당은 공화국의 강력한 타격수단들의 조준경안에 있다.

여제는 수령영생, 수령청송의 기념비들을 어제보려고 책

동하다 못해 오늘은 감히 우리

의 최고존엄의 상징에 손을

하는 것은 그들이 암으로 『대한민국어버이련합』의 치매증환자들과 똑같은 인간폐물들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남조선역적폐당은 이번 사건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미국상전에 빌붙여 조선사람이기를 그만둔 넋빠진 망동짓을 한 남조선역적폐당은 공화국의 강력한 타격수단들의 조준경안에 있다.

여제는 수령영생, 수령청송의 기념비들을 어제보려고 책

동하다 못해 오늘은 감히 우리

의 최고존엄의 상징에 손을

하는 것은 그들이 암으로 『대한민국어버이련합』의 치매증환자들과 똑같은 인간폐물들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남조선역적폐당은 이번 사건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미국상전에 빌붙여 조선사람이기를 그만둔 넋빠진 망동짓을 한 남조선역적폐당은 공화국의 강력한 타격수단들의 조준경안에 있다.

여제는 수령영생, 수령청송의 기념비들을 어제보려고 책

동하다 못해 오늘은 감히 우리

의 최고존엄의 상징에 손을

하는 것은 그들이 암으로 『대한민국어버이련합』의 치매증환자들과 똑같은 인간폐물들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남조선역적폐당은 이번 사건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미국상전에 빌붙여 조선사람이기를 그만둔 넋빠진 망동짓을 한 남조선역적폐당은 공화국의 강력한 타격수단들의 조준경안에 있다.

여제는 수령영생, 수령청송의 기념비들을 어제보려고 책

동하다 못해 오늘은 감히 우리

의 최고존엄의 상징에 손을

하는 것은 그들이 암으로 『대한민국어버이련합』의 치매증환자들과 똑같은 인간폐물들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남조선역적폐당은 이번 사건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미국상전에 빌붙여 조선사람이기를 그만둔 넋빠진 망동짓을 한 남조선역적폐당은 공화국의 강력한 타격수단들의 조준경안에 있다.

여제는 수령영생, 수령청송의 기념비들을 어제보려고 책

동하다 못해 오늘은 감히 우리

의 최고존엄의 상징에 손을

하는 것은 그들이 암으로 『대한민국어버이련합』의 치매증환자들과 똑같은 인간폐물들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남조선역적폐당은 이번 사건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미국상전에 빌붙여 조선사람이기를 그만둔 넋빠진 망동짓을 한 남조선역적폐당은 공화국의 강력한 타격수단들의 조준경안에 있다.

여제는 수령영생, 수령청송의 기념비들을 어제보려고 책

동하다 못해 오늘은 감히 우리

의 최고존엄의 상징에 손을

하는 것은 그들이 암으로 『대한민국어버이련합』의 치매증환자들과 똑같은 인간폐물들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남조선역적폐당은 이번 사건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미국상전에 빌붙여 조선사람이기를 그만둔 넋빠진 망동짓을 한 남조선역적폐당은 공화국의 강력한 타격수단들의 조준경안에 있다.

여제는 수령영생, 수령청송의 기념비들을 어제보려고 책

동하다 못해 오늘은 감히 우리

의 최고존엄의 상징에 손을

하는 것은 그들이 암으로 『대한민국어버이련합』의 치매증환자들과 똑같은 인간폐물들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남조선역적폐당은 이번 사건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미국상전에 빌붙여 조선사람이기를 그만둔 넋빠진 망동짓을 한 남조선역적폐당은 공화국의 강력한 타격수단들의 조준경안에 있다.

여제는 수령영생, 수령청송의 기념비들을 어제보려고 책

동하다 못해 오늘은 감히 우리

의 최고존엄의 상징에 손을

하는 것은 그들이 암으로 『대한민국어버이련합』의 치매증환자들과 똑같은 인간폐물들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남조선역적폐당은 이번 사건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미국상전에 빌붙여 조선사람이기를 그만둔 넋빠진 망동짓을 한 남조선역적폐당은 공화국의 강력한 타격수단들의 조준경안에 있다.

여제는 수령영생, 수령청송의 기념비들을 어제보려고 책

동하다 못해 오늘은 감히 우리

의 최고존엄의 상징에 손을

하는 것은 그들이 암으로 『대한민국어버이련합』의 치매증환자들과 똑같은 인간폐물들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남조선역적폐당은 이번 사건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미국상전에 빌붙여 조선사람이기를 그만둔 넋빠진 망동짓을 한 남조선역적폐당은 공화국의 강력한 타격수단들의 조준경안에 있다.

여제는 수령영생, 수령청송의 기념비들을 어제보려고 책

동하다 못해 오늘은 감히 우리

의 최고존엄의 상징에 손을

하는 것은 그들이 암으로 『대한민국어버이련합』의 치매증환자들과 똑같은 인간폐물들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남조선역적폐당은 이번 사건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미국상전에 빌붙여 조선사람이기를 그만둔 넋빠진 망동짓을 한 남조선역적폐당은 공화국의 강력한 타격수단들의 조준경안에 있다.

여제는 수령영생, 수령청송의 기념비들을 어제보려고 책

동하다 못해 오늘은 감히 우리

의 최고존엄의 상징에 손을

하는 것은 그들이 암으로 『대한민국어버이련합』의 치매증환자들과 똑같은 인간폐물들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남조선역적폐당은 이번 사건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미국상전에 빌붙여 조선사람이기를 그만둔 넋빠진 망동짓을 한 남조선역적폐당은 공화국의 강력한 타격수단들의 조준경안에 있다.

여제는 수령영생, 수령청송의 기념비들을 어제보려고 책

동하다 못해 오늘은 감히 우리

의 최고존엄의 상징에 손을

하는 것은 그들이 암으로 『대한민국어버이련합』의 치매증환자들과 똑같은 인간폐물들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남조선역적폐당은 이번 사건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미국상전에 빌붙여 조선사람이기를 그만둔 넋빠진 망동짓을 한 남조선역적폐당은 공화국의 강력한 타격수단들의 조준경안에 있다.

여제는 수령영생, 수령청송의 기념비들을 어제보려고 책

동하다 못해 오늘은 감히 우리

의 최고존엄의 상징에 손을

하는 것은 그들이 암으로 『대한민국어버이련합』의 치매증환자들과 똑같은 인간폐물들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남조선역적폐당은 이번 사건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미국상전에 빌붙여 조선사람이기를 그만둔 넋빠진 망동짓을 한 남조선역적폐당은 공화국의 강력한 타격수단들의 조준경안에 있다.

여제는 수령영생, 수령청송의 기념비들을 어제보려고

